

사무엘하 14.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 (삼하 14 장 1-33 절)

들어가기

본 장은 자신의 동생 '다윗'을 성폭행한 '암논'을 죽이고 외가로 도망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요압'의 도움으로 3 년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때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눈치채고 '드고아'에 사는 한 여인을 고용하여 '다윗'이 '압살롬'을 부를 수밖에 없도록 계락을 꾸몄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예상대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대려 오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늘 못마땅하게 여기던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며, '요압'이 다시금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중재를 서도록 요구하였고, 결국 '요압'의 주선으로 '다윗'을 만나게 된 '압살롬'은 '다윗'과 화해 아닌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기 위해 한가지 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3 절)

1)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중재역할을 자초한 의도는 무엇 때문일까?

- 1 절 주목: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 참고: '향하는' 이란 말의 원어적 의미는 '그리워하다' 는 뜻!

- ✧ 긍정적인 관점 ->

- ✧ 부정적인 관점 ->

2) 그럼 '요압'이 생각해낸 계책은 무엇인가? -> '드고아'에 사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준비시킴.

- ✧ 분장시킴: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힘 + 기름을 바르지 않고 +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한 사람처럼 분장시킴

- ✧ '다윗'에게 전할 말을 훈련시킴: 3 절, '...,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2. '요압'의 명을 받고 '다윗'을 찾아간 '드고아'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 호소하였습니다. (4-11 절)

1) 구체적인 호소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 ①. 과부가 되어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음. (5 절)
- ②. 두 아들이 들에서 서로 다툼이 생겨 한 아들이 죽게 되었고, 다른 아들은 도망감. (6 절)
- ③. 사람들이 도망간 아들을 잡아 죽이려 함 (7 절)
- ④. 도망간 아들 = '나의 가슴을 타오르게 하는 마지막 남은 숯불! -> 세상에 남아 있는 남편의 이름이요 씨' (7 절)
- ⑤. 아들의 모든 죄는 다 자신과 아버지에게 돌릴 것! (9 절)
- ⑥.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서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해 달라! (11 절)

- 2) 이것은 평소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다윗’의 정을 이용한 ‘요압’의 계획이었습니다.
 ☆ ‘다윗’은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들을 지켜줄 것을 맹세함
 ☆ 11 절 후반,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3) 이런 ‘다윗’의 결정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 긍정적인 측면:

☆ 부정적인 측면:

3. ‘다윗’의 맹세를 들은 ‘드고아’ 여인은 ‘다윗’에게 한가지 말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12-17 절)

1) 그럼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한 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자!

▪ 13 절 주목,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 새 번역 성경의 13 절 번역

“어찌하여 임금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것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14 절 주목,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1)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2) 방책을 베푸사, 3)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 새 번역 성경의 14 절 번역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 C.E.V. 14 절 번역

‘We each must die and disappear like water poured out on the ground. **But God doesn't take our lives.** Instead, **he figures out ways of bringing us back when we run away.**’

4. 이 여인의 말을 들은 ‘다윗’은 ‘요압’이 그녀를 보냈다는 사실을 금새 눈치챘습니다. (18-20 절)

- ✧ ‘다윗’은 이 모든 일에 ‘요압’이 연관되었는지? 물었음!
- ✧ 이때 ‘드고아’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정직하게 고백한 후 ‘다윗’의 지혜로운 판단을 구함!

❖ 참고: 본문의 ‘드고아’ 여인의 비유는 얼핏 보면 12 장 ‘나단’ 선지자의 비유와 닮은 듯 합니다. 그럼 과연 오늘 본문의 비유는 ‘나단’ 선지자의 비유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①. 드고아 여인의 비유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온전히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
- ②. 다윗의 양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 동정과 애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
- ③. 비유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 정직하고 타당한 것이 아닌, 오직 인간의 욕심과 마음을 채우려 한 아첨과 거짓에서 출발!
- ④. 비유의 내용은 진리를 확증하고 지키려는 것이 아닌 그것을 흐리게 하려는 목적!
- ⑤. 결국 이 비유로 나타난 결과는 더 부정하고 악한 결과가 나타남! (15 장이하)

5. ‘드고아’ 여인의 간청을 들은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을 명하였습니다. (21-24 절)

✧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다윗’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는 것!
 -> 24 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 결국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용서는 이때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
 -> 그렇다면 왜 ‘다윗’은 그런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을까?

❖ 참고: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태도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 ①. 훈계하고 혼내야 할 때는 침묵했다는 것! (13 장 21 절)
 - ②. 용서하고 화해할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요압’의 계략으로 인한 남들에게 보일 체면 때문에 그저 압살롬을 받아주기로 했다는 것!
 - ③.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 때,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주지 못했다는 것!
 - ④. 관대하게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할 때, 도리어 더 가혹한 자세를 택했다는 것!
- ✧ 결국 ‘다윗’의 이런 어정쩡한 중간 상태가 오히려 더 많은 잘못된 결과를 낳게 했다는 것!

6.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곧바로 백성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5-27 절)

✧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 받는 자가 없었음!
 ->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사람들은 칭찬!

✧ 이때 특별히 ‘압살롬’의 머리결은 ‘압살롬’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었음!
 -> 그러나 그 자랑거리 때문에 이후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됨!

✧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음.
 -> 그런데 딸의 이름은 ‘다말’로 성경은 그녀의 얼굴이 아름답다고 기록!

7. 2년 동안 기다려도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찾지 않자 '압살롬'은 다시 '요압'이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8-33 절)

- 1) '압살롬'은 '요압'에게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어 만나기를 요구했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만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28-29 절)
 - ✧ 그럼 왜 '요압'은 '압살롬'의 청을 거절했을까?
- 2) '요압'이 계속해서 자신을 만나는 것을 거절하자 '압살롬'은 어떤 결정을 했나요? (30-31 절)
 - ✧ 종들을 시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함!
 - ✧ 이는 자기 반성이 전혀 없는 상태 + 무정하고 악한 '압살롬'의 심성이 반영된 행위!
- 3) 자신의 밭을 태운 '압살롬'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요압'에게 '압살롬'이 하는 말을 주목!

32 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리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 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왔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 ❖ 이런 '압살롬'의 반응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압살롬'의 영적 상태는?
 - ①. 우선 '요압'의 밭을 불태운 일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음!
 - > 도리어 자신이 불을 지른 원인은 '요압' 때문이라며 '요압'을 책망함!
 - ②.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아버지 '다윗'을 원망함!
 - > 왕자의 자리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살게 한 은혜는 생각지 않고, 오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섭섭한 마음만을 마음에 담아두며 원망함!
 - ③. 나아가! 이복 형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무죄를 확신함!
- 4) 결국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 이제 '압살롬'을 만나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 그에게 입을 맞추며 용서를 표했습니다. (33 절)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나눔.

❖ 참고: 미쉬나에 있어서 유대 여성들의 신분

- 고대 랍비 문헌들 : 미쉬나 > 미드라쉬> 탈무드
- 미쉬나의 여섯 권 가운데 하나인 “여성들의 관습” -> 고대 이스라엘 여성들의 삶에 대한 문화적 입장을 설명
- 여성에 대한 미쉬나의 가장 중요한 입장 = **여성**은 그들의 가부장적 소유자들의 재산에 불과!
- ✧ 여성들의 신분에 대한 미쉬나의 규정을 분석해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
 - ①. 모든 여성들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지 않다!
 - ②. 특정한 남성들의 권위에 종속되어 있는 여성일지라도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인격적인 존재들로 간주되어 있다.
- ✧ 모든 여성들은 성적 기능과 출산 기능을 지배하고 있는 남성들에 의하여, 다음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생물학적 기능의 소유자	종속적인 여성	자율적인 여성	생물학적 기능의 소유자
아버지	미성년 딸	성년이 된 딸	자신
남편	아내	이혼녀	자신
시동생	씨받이 결혼을 한 과부	과부	자신

참고: 이러한 특징은 여성의 성적 기능과 출산 기능의 처리에 따라 명백하게 드러나 있음!

- 미성년 딸의 결혼은 그녀의 아버지가 주선한 데 비하여(M. Ket. 4,4), 성년이 된 딸은 자기 스스로 아버지와 의논해서 결정! (M. Qid.. 2,1). (ex. 리브가)
- 미성년 딸을 강간한 경우 벌금을 그녀의 아버지에게 지불하도록 함. (M. Ket. 4,1).
- 그러나 만일 그녀가 성숙한 성인인 경우, 벌금은 그녀 자신에게 지불됨(M. Ket 3,6).
-> 이러한 차이점은 미성년 딸의 생물학적 기능은 그녀 아버지의 법적 재산인데 비하여 성인이 된 딸의 것은 그녀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
- 아내와 이혼녀의 경우도 규정들은 성적 특징으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소유한 남편에 두고, 생물학적 기능에 손상을 줄지도 모르는 아내의 서약을 취소시킬 수 있음. (M. Ned. 11,11-12, M. Naz 4,5).
- 그러나 간통으로 인하여(혹은 단순히 자기 마음대로) 아내와 이혼하는 남편은 일단 해방된 그녀의 성적 자유를 제한할 수 없었다(M. Git. 9,1,3).
- 어느 누구도 이혼한 여인에 대해선 소유권을 주장할 없음. (민수기 30,10, M. Ned 11,9).
- 씨받이 결혼을 한 과부들은 시동생에게 속했고, 시동생은 자신이 선택해서 그녀를 해방시키지 않는 한 재혼할 수 없는, 자기 형수의 성적 기능을 상속했다(M. Yeb, 4,7)
- 그러나 정상적인 과부들은 그녀의 성적 특징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었기에, 자기 뜻대로 재혼할 수 있음.

▪ 유딧 롬니 웨그너, (한국 여성신학 4 호: 논문소개)

‘여성의 생물학적 기능은 여성들을 한 남성으로부터 다른 남성에게로 이전시키는 형식적 행위를 증명해주는 것으로서 하나의 경제적 재산이었다. 고대 이스라엘 세계 속에서 아버지는 자기 딸의 처녀성을 신부의 몸값을 받고 기술적으로 팔았다. 미쉬나 시기에 이러한 행위는 결혼의 한 부분으로서(ketubbah, M. Ket. 4,7) 신부의 몸값(mohar, 출애굽기 22,16)을 신부 스스로 결정하는 관습이 되었다. 만일 신부가 처녀가 아닌 경우, 신랑은 내역과 맞지 않은 그 상품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M. Ket. 1,1). 또는 그와 반대로, 아버지는 자기의 미성년 딸을 강간하거나 유혹한 남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M. Ket. 4,1). 왜냐하면 결혼식장에서 손상된 가치는 그에게 손해를 끼쳐주었기 때문이다.

결혼예식의 일방적인 양식은(M. Qid. 1,1), 신랑이 신부에게 “그대는 나를 위하여 구별되었도다”(mequddeshet, M. Qid. 2,1)라는 선포로 요약되어 있다. 이 선포는 재산의 한 품목(즉, 신부의 처녀성)이 아버지로부터 남편에게로 이전되어 있던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혼하는 남편은 일방적으로 아내의 육체에 대한 성적 권리를 “그대는 이제 어느 남자에게나 허락되었도다”(M. Git. 9,3)라는 말로 포기하며 공식적으로 자기 아내를 버렸다. 그러나 재산이 그 스스로 방출될 수 없는 것은 그 재산이 주인을 소유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미쉬나의 규정은 아내에게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어느 권한도 주지 않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유대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황폐케 만드는 극심한 불이익이다).

씨받이 결혼을 한 과부(yebamah)를 지배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이와 동일한 입장이다. 고인의 형제가 그녀의 성적 기능을 자동적으로 상속할 때 그녀는 동산으로 간주되었다(M. Yeb. 4,5). 그녀는 이 남자가 그녀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구별해주지 않는 한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의 인격은 아내나 미성년 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성적 기능에 희생되어 있었다. 따라서 미쉬나의 제도는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을 그녀의 성적 특징을 소유한 자와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다.’